


당 팀장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참석했고, 조정이 시작되어 양측이 신청한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재부는 제가 언론사 측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었던 것과 명백히 잘못된 점을 어떻게 잘 짚어 내시는지.. 제가 준비했던 언론사에 대한 질문 리스트와 놀라울 정도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출한 서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감동과 감사의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중재위원님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지적하자, 저의 조정신청 내용에 대하여 비꼬는 형식의 답변서를 장황하게 준비했던 언론사 측에서도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점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중재부가 저와 언론사 간에 서로 최대한 양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셔서 원보도의 제목을 “지하철서 여성승객 흉기 위협범 검거”로 수정하고 저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뤄졌습니다.

조정절차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왜 하루라도 빨리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사가 “언론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주었으면 좋겠고,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여 보도한 한 줄의 기사가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시고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휴가까지 내면서 조정 기일날 방청허가까지 받아 방청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끝까지 응원해주신 안양मान경찰서 강동현 경사님, 심리기일에 긴장되어 말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함에도 끝까지 ‘경청’ 해주신 중재위원님과 조사관님, 이 기회를 빌려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저와 같이 언론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On The Spot 현장취재

### 언론중재위원회, 6.25 참전용사 유해발굴 현장 찾아



권성 위원장과 사무처 직원들은 10월 24일 인강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관계자들과 경기도 파평산 일대의 6.25 참전용사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부터 감식현황 및 유해발굴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발굴현장을 둘러봤다.

권 위원장은 “유해발굴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성 회복운동”이라며 해당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의식을 가진 뒤, 준비한 헌시 ‘이제는 미소 지으소서’를 낭독하고 이 시를 해당 부대에 기증했다.

#### 이제는 미소 지으소서 - 파평산에서 散華한 無名英雄들의 靈前에

장원상(중부분부장)

맑은 바람 마시며  
따뜻한 햇볕 즐기던  
아름다웠던 날,  
極惡無道한 軍靴가  
이 疆土에  
씻을 수 없는 슬픔의 씨  
뿌리며 지나갈 때  
조상들이 만들어 물려준  
평화의 땅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저 하늘 지켜내기 위해  
아까움 없이 고귀한 목숨 바친  
당신들.

당신들의 용감하고 숭고한 정신  
자랑하면서도  
당신들이 만들어준 자유  
누리면서도  
당신들이 지켜낸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면서도  
  
이제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들의 땀과 피  
이제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들의 삶  
이제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들의 정신  
이제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들의 소원  
  
晩時之歎을 自責하며  
당신들이 간절히 바라던  
우리 민족의 뜻  
이루려 노력하리니  
우리의 영웅들이여  
이제는 평화로운 하늘에서  
미소 지으소서.